

〈노처녀가〉 이본의 담론 특성과 그 원인으로서의 ‘시선’

박상영*

|| 차례 ||

- I. 들머리: 〈노처녀가〉에 대한 이해들
- II. 〈노처녀가〉 두 편의 담론 특성, 그 차이의 변주
- III. 담론의 차이, 그 원인으로서의 ‘시선’
- IV. 〈노처녀가〉 이해를 위한 새로운 모색-결론을 대신하여

【 】

본 연구는 〈노처녀가〉 두 편(I, II)의 담론 특성과 그 원인으로서의 시선의 문제를 개인과 사회의 두 측면에서 한번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 두 작품의 담론 특성은 대체로 ‘한탄형-극복형’이라는 표면적 측면에서 이해되어 온 감이 크고, 그 이면에 노처녀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목된 바가 없다. 하지만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가 타인과의 공감 부재, 청자 호명, 욕망 결핍, 자아 지향의 독백체(나-너의 담론), 비극적 정서의 극대화 등의 특성을 보인다면(〈노처녀가〉 I), 다른 하나는 자기 인식에 근거한 담론(나-나의 담론), 타자와의 공감 형성, 결핍된 욕망 해소, 행복한 결말 등의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노처녀가〉 II).

두 작품 간의 이러한 담론 방식과 미감(美感)의 차이는 청자와의 공감 형성 여부와 더불어 그 이면에 시선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우선 〈노처녀가〉에는 노처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시선이 공존하는데, 전자의 시선은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18세기 노처녀, 노총각을 구휼대상으로 삼았던 국가적인 정책 담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당시 노처녀에 대한 집단의 부정적이고 공적인 시선과 이러한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시선에 편승한 개인의 시선이 중첩되어 생겨나게 된 작품 속 부정적인 시선은, <노처녀가>Ⅱ에 오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성과 자각으로 인해 극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긍정적인 시선). 즉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외부(외모, 가문, 부모 등)가 아닌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집단적이고 부정적인 타자의 시선에 항거하는 거부의 시선을 드러낸다. 이들 시선은 하나가 노처녀를 비정상적 범주로 바라보는 부정적, 집단적, 국가적, 타자의 시선이라면, 또 다른 한 축에서 발견되는 긍정적, 개인적, 자아 각성의 시선은 기존의 유교적, 중세적 시선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시선의 일면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 문학사적 흐름에서 주목된다.

주제어 : <노처녀가>, 담론 구조, 시선, 노처녀, 부재의식, 자기 인식

I. 들머리: <노처녀가>에 대한 이해들

‘노처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문학적 소재가 되어 왔다. 이는 비단 힘없고 나약한 느낌을 자아내는 ‘늙음(老)’과 순수함, 수줍음, 생기발랄함 등으로 이미지화 되어 버린 ‘처녀’가 결합해 일면 부조화 한 듯 조화를 이루고 있는 ‘노처녀’라는 단어의 특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시집 못간 혹은 안간 처녀의 한탄이라는 것이, 히스테리라는 정신병적인 것 혹은 정상의 궤도에서 벗어난 비정상 범주의 하나로 간주되면서, 저보다 못한 이를 웃음거리로 삼아 공공연히 담론의 장(場)으로 끌어들이는 데서 흥미를 느끼는 세인(世人)의 특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만큼, 이들 노처녀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우리의 고전시가에서는 조선 후기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이에 따른 규방권의 문학적 확대 속에서 의미 있게 등장한 <노처녀가>에서 그 일단이 보인다. 이 작품은 다양한 제목의 이본이 발견되지만 서로 엇비슷하여 대체로 두 가지로 범주화하는 것이 관례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1, 2

혹은 잡가본/삼설기본, 한탄형/극복형 등으로 부르는데,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노처녀> I, II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때, I은 늙도록 시집 못한 몰락 양반집 규수가 부모를 원망하는 내용을, II는 이러한 처지를 극복하고 마침내 신랑감을 만나 행복하게 결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이 두 이본에 대해서는 그간의 연구사적 자취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구분 또는 명명법보다는 대체로 가창 환경과 관련하여 서로 간의 선후 문제¹⁾, 이본 연구²⁾, 장르적 성격 및 영향 관계³⁾, 노처녀 때리기로 바라본 작품의 성격 문제⁴⁾, 작자 문제⁵⁾, 작품 간의 동일성 여부 문제⁶⁾ 등이 주요

1) 성무경, 『노처녀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조선 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사, 2004.

2) 이 노래의 이본 현황은 성무경(위의 글, pp.192-195)과 강경호(『19세기 가사의 향유 관습과 이본 생성-〈노처녀가〉(2)〉와 그 관련 작품을 통해 본 가사 향유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18집, 반교어문학회, 2005, pp.49-51)의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3) 이 노래의 장르적 수수관계는 가사의 소설화(혹은 서사화)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 왔지만(①), 이에 대한 반론도 가창문화권 및 작품의 선후 문제, 작품 내적 담론의 측면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②). 전자는 최원식, 서인석, 김용찬, 최규수 등의 글에서, 후자는 최진형, 성무경, 고순희 등의 글에서 볼 수 있다(①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과정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비평』46호, 창작과비평사, 1977; 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교섭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p.66; 김용찬, 『삼설기』소재 <노처녀>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한 검토』, 『한국가사문학연구』(정재호 편), 태학사, 1996, pp.419-420;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잡가본 노처녀>와의 대비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5집, 한국시가학회, 1999, pp.401-426; ②최진형, 『가사의 소설화』 재론』, 『성균어문연구』32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pp.213-244; 성무경, 위의 논문, 고순희, 『노처녀가 1연구』, 『한국시가연구』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p.186).

4) 고순희, 위의 논문, p.186.

5) 이에 대해서는 남성작 혹은 여성작으로 본 경우, 성별에 근거한 작자 논의를 넘어서 작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려 한 경우 등으로 대별되는데, 관련 연구사 검토 및 논의 정리는 하운섭의 글에 자세히 하며(하운섭, 『시적 체험의 다양성과 <노처녀가(1)>-규방가사 권역에서 향유된 <노처녀가(1)>을 중심으로』, 『국어문학』44집, 국어학회, 2008, pp.285-303), 이와 더불어 두 노래가 애정담론을 구축해 가는 과정을

쟁점이 되어 왔다. 지면상 이들 연구의 공과를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의의를 거칠게 한번 요약해 보자면 한동안 소외되고 주변부로 치부되었던 인물인 노처녀를 고전시가여성사에서 새롭게 복원시켰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작품에 대한 방만한 논의는 “작품의 정체성은 오히려 오리무중에 가려진 형국”⁷⁾이 되었다고 지적될 만큼, 작품의 실체를 또렷이 하지 못했다는 반성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 작품의 실체가 오롯이 드러나려면, 가창과 독서의 차이 및 연행 환경의 특수성 등 작품 외적 측면에서 대상 노래가 갖는 의미를 거시적으로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작품 자체의 내적 특성을 세밀히 살펴보는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그간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 두 노래의 담론에 주목해 보려 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들은 결말의 차이에 주목해 단순히 신세 한탄과 자기 극복이라는 표면적인 측면에서 이들 작품을 이해하거나 이러한 차이도 가창과 독서라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연행되었기에 노정된 현상으로만 이해한

향유문화의 측면과 결부된 화자 및 담론의 측면에서 다루어 참고해 볼 만한 글로는 양정화의 것이 있다(양정화, 『조선후기 가사에 나타난 ‘애정담론’의 실현 양상-〈삼설 기본 노처녀가〉와 〈잡가본 노처녀가〉의 향유문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54집, 국제어문학회, 2012, pp.25-275).

- 6) 이에 대해서는 두 노래를 같은 선상에서 봐야한다는 쪽과 별개로 봐야한다는 논의로 대별되어 있다. 특히 후자는 주류였던 전자의 입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박일용 교수가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노처녀가>1이 班家 노처녀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변한 작품인데 반해, <노처녀가>2는 양반층 자제의 성적 욕망과 대비되는 노처녀의 막힌 욕망을 거리두기 장치를 통해 드러낸 풍자적인 작품이어서 별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박일용, 『삼설기에 나타난 율문적 문체와 그 의미』, 『장르교섭과 고전시가』, 월인, 1999; 『노처녀 1의 담론 형태와 그 시학적 의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 7) 김석희, 『〈노처녀가〉 이해의 시각』, 『선청어문』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p.286.

경향이 크다. 두 노래 간의 동일성에 보다 주목해 온 연구들도 대체로 노처녀의 신세 한탄이라는 주제를 공통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혹은 노처녀가 자신의 개인적 처지를 공적으로 발화한다는 측면에서만 이들 노래의 담론 특성을 이해하려 한 경향을 볼 수 있다.

두 작품 간의 동일성 여부 문제를 떠나, 작품 자체만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들 간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꽤나 발견된다. 먼저 표면상 <노처녀가> I에서 주인공을 규정하는 것들이 40대 노처녀, 예쁜 외모, 가난한 양반으로서 명분에 사로잡힌 집안 등인 데 비해, <노처녀가> II에서는 50대 노처녀, 못난 외모, 생계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집안 등이라는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노처녀'라는 동일 범주 속에서 <노처녀가> I이 '청자 호명'으로 시작하는 자기 한탄의 담론을, <노처녀가> II는 자기 인식으로 시작하는 신세 한탄의 담론 형태를 보여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의 차이는 작품의 미세한 부분에서 오는 차이를 넘어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감성에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더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발견되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노처녀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노처녀가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는 크게 주목된 바가 없다. 시선 곧 어떤 대상을 본다는 행위는 "단순한 감각행위가 아닌, 그 세계의 지식체계가 개입하는 지극히 사회문화적인 현상"⁸⁾이다. 그렇기에 그 속에는 개인적인 측면과 더불어 집단적인 측면이 한데 어우러져 있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시선은 봄-보임 간 권력의 헤게모니가 이루어지는 권력 장(場)의 핵심이기도 하고⁹⁾ 단순히 본다는

8) 김현주, 『'엿보는 시선'과 재현 윤리의 문제-〈단오풍정〉과 판소리 사설의 상관성을 통한 해석』, 『시학과 언어학』22호, 시학과 언어학회, 2012, pp.153-173 및 존 버거·伊藤俊治, 『이미지ways of seeing』, 동문선, 1990, pp.240-250 참조.

감각적 차원을 넘어서 지식 축적의 행위로 이해될 때도 있었으며¹⁰⁾, 관찰자의 육체로부터 찢어 놓는 그 무엇으로 보아 외부를 순수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의 것으로 인식될 때¹¹⁾도 있는 등 지금까지 문예미학사에서는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시선을 어떻게 정의하든, 중요한 것은 누가 이들 노처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담론화 하는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말한다면야 제 3자가 아닌 노처녀 스스로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이를 극복하려 한 것인 만큼 ‘노처녀가 자신의 처지를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담론화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왜 노처녀는 자신의 처지를 이중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순수하게 개인적인 시선이기만 한 것일까? 작품 간 발견되는 시선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것이 만들어내는 담론 방식의 차이와 결, 그로 인해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성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등등 여전히 이 노래를 둘러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는 <노처녀가>를 둘러싼 이러한 제반 문제를 담론과 시선의 문제로 한번 풀어가고자 한다. 이는 작가는 여성문학사 내에서도 주변

9) 푸코는, 보는 시선은 보이는 대상들 간의 차이를 규정하는 그 무엇으로, 정상/비정상을 판가름하여 통제하기도 하는 권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를 눈과 구분해, ‘보는 자=시선=승리자, 보이는 자=눈=패배자’로 보기도 한다(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기파랑, 2008, p.42).

10) 토마스 풀린, 『푸코와 시각의 붕괴』, 『모더니티와 시각의 해체모니』(데이비드 마이클 레빈 편, 정성철·백문임 역), 시각과 언어, 2004, p.454.

11) 시각 보조 장치들의 개발과 관찰자의 규범의 상관성 및 그 변모 양상은 조나단 크래리의 글에 자세하다(조나단 크래리, 『시각의 근대화』, 『시각과 시성』(헬 포스터 편, 최연희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4, p.64; 『관찰자의 기술』(임동근 외 역), 문학과 문학사, 2001, p.68).

부로 치부된 노처녀가 자신을 어떻게 시각화 하고 또 그 과정을 하나의 담론으로 표출해 냈는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에 한정되지만 크게는 집단-개인, 작품 내적-외적 측면 등 다양한 편폭 속에서 노처녀를 바라봄으로써 여성 시선의 시가미학사적 함의를 총체적으로 구명하기 위한 토대 작업이기도 하다.

Ⅱ. <노처녀가> 두 편의 담론 특성, 그 차이의 변주

두 편의 <노처녀가>에는 같은 듯 다른 듯한 노처녀가 등장한다. 두 여성 간에는 늙도록 결혼 못한 자신의 신세타령을 늘어놓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끝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노처녀(<노처녀가> I)와, 철저한 자기 인식을 통해 마침내 행복한 결혼에 이르고 마는 노처녀(<노처녀가> II) 간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 간극은 1차적으로는 주인공이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청자와의 공감 형성이라는 문제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 '나-너'의 담론: 타자지향¹²⁾의 내면 수렴과 부재 의식

인간세상 사람들아//이 내 말씀 드러보소//인간만물 생긴 후에//금수초록 짝이 있다//인간에 생긴 남자/부귀자손 갖것마는//이 내 팔자 험구줄손/날가튼이 또 있는가//백년을 다 사러야//삼만 육천 날이로다//혼자 살면 천년 살며/정

12) 일반적으로 '타자 지향'은 '청자지향'과 동일시되어, 시적화자가 대상을 향해 표출하는 사실수행 양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화자는 청자를 향해 호명하거나 이를 강하게 지향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하나의 소통 주체를 지향하기보다는 텍스트가 제시하는 화제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타자지향'으로 본다. <노처녀가> I에서는 시적 화자가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는 측면에서 일

녀되면 만년 살가//답답한 우리 부모/가난한 좁양반이/양반인체 도를 차려/처
사가 불민하여/괴망을 일 사르니/다만 한 딸 늘거간다//적막한 빈 방안에/적
료하게 홀로 안자/전전불매 잠 못이뤄/혼자 사설 드러 보소//

이는 <노처녀가> I의 서두 부분으로, 화자가 청자를 호명하는 데서 시작된다. 누군가를 호명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거나 어떤 일을 지시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내적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수사적 장치 중 하나일 때가 많다. 어느 경우든 호명 자체는 호명하는 이가 호명되는 이를 자신의 세계 속으로 끌어당겨 상호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행위이다. 따라서 대화를 전제로 한 이 호명 행위에는 청자와 공감하고픈 시적 화자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셈이다. 공감의 핵심 내용은 인용문에서 보듯이 다름 아닌 나이가 들어서까지 짝을 못 만나 밤마다 전전공공하는 시적 화자 자신의 쓸쓸한 처지와 그렇게 된 이유이다.

그런데 공감을 형성하는 방법이 자신의 심정을 단순 토로하는 식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怨詞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적이다(밑줄 부분). 이를 남성 화자의 발화로 본 경우¹³⁾도 있지만, 작자 논의에 굳이 초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논의¹⁴⁾와 작품 내적 상황 또한 결코 남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두루 감안한다면, 여기서 부모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오롯이 노처녀로 상정되는 여성 화자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를 향한 원망, 밖으로의 감정 표출은 다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는 내적 수렴

면 자아 지향적 담론 형태를 보이는 것 같지만, 청자를 호명하고 청자를 향해 자신의 사설을 풀어낸다는 점에서는 타자지향의 담론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자(=텍스트적 상황 속에 있는 내적 청자, 텍스트 청자)로부터 대담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타자를 지향하지만 결국 자기내면의 이야기로 수렴되는 담론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13) 고순희, 앞의 논문 참조.

14) 하운섭, 앞의 논문 참조.

으로 진행되다가 뚜렷한 해결책이 없자 다시 청자를 호명하는 형태로 나타난다('혼자 사설 드리 보소'). 즉 청자호명+자기한탄+부모원망+자기한탄+청자호명의 반복된 담론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아래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노망한 우리 부모/날 길러 무엇하리//죽도록 날 길러서/자바쓸가 구어쓸가
//인황씨적 생긴 남녀/불희씨적 지은 가취/인간배필 혼취함은/예로 부터 잇것
마는/어떤 처녀 팔자 조하/이십전에 시집간다//남녀자손 시집 장가/땀땀한 일
이건만/내 팔자 기험하야/사십까지 처녀로다//이런 줄을 아랏스면/처음 아
니 나올 것을/월명사창 긴 긴 밤에/침불안석 잠 못드러/적막한 빈 방안에/오
락가락 다니면서/장래사 생각하니/더욱 답답 민망하도//부친 하나 반편이오/
모친 하나 숙맥불변/날이 새면 내일기오/세가 쇠면 내년이라//혼인사설 전폐
하고/가난사설 뿐이로다//

여기서 여성 화자는 부모를 노망했다고까지 하는 등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거침없이 怨詞를 표출한다. 그러다가 시야를 돌려 주위를 보니 누구는 이십 전에 결혼하여 대를 잇는 기쁨도 맛보고 있다. 다시 그러한 시선은 40세까지 혼자인 자신에게로 옮겨지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존재론적 회의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자신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이것도 잠시, 화자는 다시금 자신을 낳았으면서도 혼인성사의 책임을 다 못하는 부모에게로 원망의 화살을 돌린다.

그러나 정작 부모에게는 딸의 혼인문제보다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부모의 관심사와 화자의 관심사가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에도¹⁵⁾ 그 층위를 달리하며 어긋남을 보일 때, 짜증과 불만은

15) 살고 죽는 문제는 부모에게는 가난 해결이라는 食의 차원에 있지만 여성 화자에게는 혼인 및 거취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즉, 시적화자에게는 혼인을 통해 부모 품을 떠나 새 공간에서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크게 다가온다.

극에 달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가까운 친척의 부음 소식을 듣고도 기다리던 청혼서가 아닌 부음이라는 데 대한 서글픈 감정이, 혈육을 잃은 슬픔보다 시적 화자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외삼촌의 부음이라 애답고 서른지고 이내 간장을 어이할꼬’).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자 호명-신세 한탄-부모 원망 등이 반복되는 담론 구조 속에서 입과 벗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외로움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집에 아오아기/발서 자손 보단말가/동편집 용골년느/금명간에 시집가네
/그동안에 무정세월/ 시집가서 풀렷마는/ 친고 없고 혈속 업셔/ 위로하 리
전혀 없고/ 우리 부모 무정하여/ 내 생각 전혀 없다.//

시적 화자는 지금 친구도 없고 혈속도 없고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도 무정하여 혼자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밑줄). 입과 벗, 부모의 관심 부재는 곧 시적 화자의 처지에 동조해 줄 존재의 부재이자 공감 자체의 부족에 다름 아니다. 시적 화자는 이를 극복하고자 청자를 호명하지만, 침묵하기만 하는 청자의 존재는 또 그 자체로 시적 화자를 소외시킨다. 참다못한 시적 화자는 마침내 부모를 향해 직접적으로 怨詞를 표출하기까지 한다(‘부귀빈천 생각 말고 인물풍채 마땅커든 처녀 사십 나이 적소 혼인거동 차려주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에도 아랑곳 않고 부모는 침묵한다. 그렇기에 검은 암소 살찌 있고 봉사전답 다 갖추었는데도 가문 간 격차가 난다고 혼인을 성사시키지 않는, 부모를 향한 딸의 원망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그 원망은 급기야 나의 처지에 공감해 줄 사람들 하나 없는 곳에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것으로까지 표출된다.

앗가울 손 나의 거동/ 거울 다려 하는 말이/ 어화 답답 내 팔짜여/ 갈대없다
나도 너도/ 쓸대없다 너도 너도 /우리 부친 병조판서/ 한아버지 호조판서/
우리 문벌 이러하니/ 풍속 쫓기 어려워라/안연 듯 춘절되니/ 초목군생 다 즐
기네/ 두견화 만발하고/ 잔디닐 속님 난다/ 사근 바자 쟁쟁하고/ 종달새 도두
뜬다/ 춘풍야월 세우시에/ 독수공방 어이할고//

여기서는 집안이야 어떻든 인간으로서 남녀 간의 애정 욕구가 혼인을 통해 실현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시적 화자와 그보다는 명분이 맞아야 일이 성사된다고 보는 부모 간의 갈등, 혼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엿보인다. 이는 한 가정 내 자식-부모 간의 갈등이자 변화하는 시대 속 욕망을 추구하려는 한 축과 여전히 명분이라는 형식적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또 다른 한 축 간의 갈등이 빚어낸 사회적인 차원의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원수'로 표현된 데서 보듯이,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앞집에는 신랑 오고 뒷집에는 신부 가네.'라며 나이가 차서 시집가는 청춘 남녀들에 관해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적 화자는 더욱 서글퍼지며 그로 인한 소외감도 덩달아 극대화된다. 그렇기에 시적 화자는 '긴 밤에 짝이 없고 긴 날에 벗이 없다'고 자탄하며 '앉았다가 누웠다'가 여러 번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답이 없다. 그렇기에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도 죽지 못하고 살아 있는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나의 처지를 '너'와의 공감을 통해 극복하고자 곧 나-너의 관계 속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치지만(나-너의 담론), 결국 세인들의 외면, 부모의 침묵, 아이들의 무심함 등에서 보듯 이들의 공감을 얻지 못함으로써 결국 화자는 타자를 지향하나 다시 자기 내면의 슬픔 속으로 침잠할 수밖에 없는 자아지향의 담론 형태를 보여주고 만다(슬픔의 구심적 수렴).

2. ‘나-나’의 담론: 자아지향의 외적 확산과 자기 인식

한편, <노처녀가>Ⅱ는 <노처녀가>Ⅰ의 담론 특성을 공유하는 지점도 있지만 이와는 달리, 새로운 담론 방식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작품은 그간 고전소설 <별삼설기>의 일부로 삽입된 탓에 일찍이 가사의 소설화라는 측면에서 논의되기도 한 한편, 소설과는 별개로 이 작품만의 고유한 독자성이 구명되기도 했다. 전자는 작품의 유래를 설명하는 첫 부분도 포함하여 <노처녀가>Ⅱ로 보아왔고, 후자는 노처녀의 사설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진정한 의미의 <노처녀가>Ⅱ로 보고 논의를 진행해 온 감이 크다. 어느 경우든 일리가 있지만, 특정 작품의 담론 특성을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랫말 부분뿐만 아니라 이의 유래를 설명하는 첫 머리 부분 역시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까지를 모두 <노처녀가>Ⅱ로 보아 그 담론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옛적에 한 여자 있오되 일신이 갖은 병신이라. 나이 샷비이 넘도록 출가치 못하여 그저 처녀로 있으니 옥빈홍안(玉鬢紅顏)이 스스로 늙어가고 설부화용(雪膚花容)이 공연히 없어지니 설움이 골수에 맺히고 분함이 심중에 가득하여 미친 듯 취한 듯 좌불안석하여 세월을 보내더니 일일(一日)은 가만히 탄식왈(曰), ‘하늘이 음양을 내시매 다 각기 정함이 있거늘 나는 어찌하여 이러한고 젊기도 측량(測量)없고 분하기도 그지없네.’ 이처로 방황하더니 문득 노래를 지어 화창(話唱)하니 같왔오되 ‘어와 내 몸이여 젊고도 분한지고 이 설움을 어이하리...(하략)....’

우선 여기서는 청자 호명 대신, 자기에 대한 인식 곧 깨달음이 뚜렷이 드러난다. 노처녀 화자⁶⁾는 시집 못 간 것에 대해 오랜 세월 분통해 하면서

16) 담론 층위에서 볼 때 ‘노처녀’는 텍스트적 인물(화자)이자 언술 내용의 주체라고 할

도 참고 지내오다가 어느 날 문득 가만히 탄식하며 자신의 처지를 되짚어 보기 시작한 것이다. 시적 화자의 발화(말줄 부분) 속 대상 언어로 삼입되어 있는 텍스트적 인물인 노처녀의 발화를 보면, 시집 못 간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자기 인식이 매우 뚜렷하다. 이러한 인식은 작품 중간 중간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때로는 긍정적이다가도 때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수 있으며, 이러한 노처녀의 상황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또 다른 화자는 '옛적에~탄식왈(曰)'에서 보듯 텍스트 밖에서 텍스트적 인물의 상황 및 심경을 서술해 주는 시적 화자이자 언술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작품 전체적으로 '노처녀'는 언술행위 주체에 의해 대상화되어 작품 속 한 인물로 등장한 셈이다. 그러나 이 언술행위 주체는 노처녀의 상황을 서두에 설명하고 있을 뿐, 실제 노처녀가 겪는 작품 상황 속 주인공은 고스란히 '노처녀'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 속 주인공인 노처녀(언술 내용의 주체)가 누군가를 호명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사실로 풀어낸다는 점에서는 '자아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논의의 편의상 이해를 위해 한국 시가의 담론 층위를 잠깐 언급해 보면, '작자-[시적화자(텍스트 화자-텍스트 청자)-시적청자]-독자'의 구도에서 () 속 인물은 언술 내용의 주체이며 [] 속 소통 주체는 언술 행위의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노처녀>Ⅱ에서 노래의 주체는 '노처녀' 곧 텍스트 화자이지만, 추후 서술 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적 화자'라고 일단 명명하고자 한다. <노처녀>Ⅰ에서는 시적 화자=텍스트 화자가 동일하다면, <노처녀>Ⅱ에서는 '시적화자≠텍스트 화자'이지만 편의상 '텍스트 화자'라는 용어 대신 '시적 화자'라는 용어를 쓰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적화자인 노처녀와 작자의 동일성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단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작자와 시적화자(노처녀)의 동일성 여부는 작자가 밝혀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자동일시 발화인지 비동일시 발화인지의 구분이 뚜렷이 가능하고, 작자가 밝혀져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작품의 내용 및 어조에 따라, 가령 <정과정>이나 <사미인곡>, <속미인곡>의 경우처럼 남성의 여성 목소리 내기로 볼 것인 작품 속 시적화자를 그대로 작자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필자는 작자 미상의 작품의 경우, 작자동일시 발화/비동일시 발화의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연행 환경 및 기타 외적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 작품이 있을지라도) 일단 전자(작자동일시 발화)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담론 주체에 따른 담론 층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히 다(박상영, 『사설시조의 웃음 미학과 담론』, 아세아문화사, 2013 2장 참조).

내 나이를 헤어보니 오십줄에 들었구나 먼저는 우리 형님 십구 세에 시집
 가고 셋째의 아우님은 이십에 서방 맞아 태평으로 지내는데 불쌍한 이내 몸은
 어찌 그리 이러하고...(중략)...내 비록 병신이나 남과 같이 못할쏘나 내 얼굴
 엷다 마소 엷은 궁계 슬기 들고 내 얼굴 검다 마소 분칠하면 아니 훤까 한편
 눈이 멀었으나 한 편 눈은 밝아 있네 바늘귀를 능히 꿰니 보선볼을 못 박으며
 귀먹다 나무라나 크게 하면 알아듣고 천등소리 능히 듣네 오른손으로 밥 먹을
 니 왼손하여 무엇할꼬 왼편 다리 병신이나 뒷간 출입 능히 하고 콧구멍이 맥
 맥하나 내음새는 일쭉 말에 임시음이 푸르기는 연지빛을 발라보세 엉덩뼈가
 너르기를 해산 잘할 장본(張本)이오 목이 비록 움쳤으나 만져보면 없을쫘가
 내 얼굴 볼작시면 곱든 비록 아니하나 일등 수모(手母) 불러다가 헛거롭게
 단장하면 남대되 맞는 서방 난들 설마 못 맞을까

여기서 시적 화자는 오십이 되었어도 혼자인 자기에 대한 연민과 그 상
 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
 신을 다시 돌아보니,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특히 비정상적인 자신의 외모를 오히려 합리화하는 데서 크게
 드러난다. 문제는 이러한 자기 합리화 혹은 긍정성이 진지하기보다는 오히
 러 큰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본문에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얼굴 모양
 에 이어 제시되는 행실 자랑, 재주 자랑, 요리 솜씨 자랑, 봉제사 자랑 등
 스스로의 자랑이 길게 나열되는 데에 이르면 이러한 면은 더욱더 확대된
 다. 이는 시적 화자의 그 자랑이라는 것이 남들에게 내세울만하다기보다는
 당시 여성이라면 갖추어야 할 평범한 것들을 대단하게 늘어뜨려 놓는 정도
 일 뿐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오십 넘어서까지 미혼인 화자의 처지는 결코
 우스울 수 없지만, 노처녀 자신이 범속한 일을 비범한 것처럼 으스대는 과
 정 자체는 스스로를 희화화하며 우스꽝스러움을 창출하는 것이다.

한편, 시적 화자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면모도 보여준다.

그렇기에 '내 모양 볼작시면 어른인지 아해런지 바람 맞은 병인(病人)인지 광객(狂客)인지 취객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형편없는데다가 그렇기에 '열없기도 그지없고 부끄럽기 측량없'음을 한(恨)하기도 한다. 형님의 혼례를 보며 다음엔 자기 차례이겠거니 하고 축하해 주며 마음 들떠 있던 것도 잠시, 그 새 저보다 나은 동생이 먼저 혼례 치르는 것을 보며, 시적 화자는 더욱 처량해진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는 극단적인 죽음까지도 생각하지만 그조차도 쉽지가 않아 괴롭다. 여기에 이르면, 서글픈 현실에서 탈주하려는 자아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자아 간의 처절한 갈등이 싸한 아픔으로 다가온다. 그렇기에 다들 '불쌍하다'고 하는 소리에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내는 시적 화자가 더욱 안타깝기까지 하다.

시적 화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되짚어 보다가 이에서 벗어나고자 '잠'을 청해 본다. 하지만 그마저도 순간일 뿐, 깨고 나면 다시 원통함이 치솟아 오른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서글프게 바라보던 시적 화자는 마침내 자기성찰 이후에 하나의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내부에 있었다고 하는 自覺이다.

① 내 서방을 내 같히지 남다려 부탁할까 내 어찌 미련하여 이 의사(意思)를 못 냈던고 만일 벌써 깨쳤다면 이 모양이 되었을까 청각(淸覺) 먹고 생각 하니 아주 쉬운 일이로다 적은 염치 돌아보면 어느 년(年)에 출가할까 고름 맺고 내기하며 손바닥에 침을 뱉어 맹세하고 이른 말이 내 팔자에 타인 서방 어떤 사람 뒤편에 질꼬 쇠침이나 하여보세 알고지고 알고지고 어서 바빠 알고지고 내 서방이 늙가 되며 내 낭군이 늙가 될까...(중략)...정신을 진정하니 잠깐 사이 잠이 온다 평생에 맺힌 인연 오늘 밤 춘몽중(春夢中)에 혼인이 되었구나...(중략)...잠은 눈을 잠깐 뜨고 신랑을 살펴보니 수망치던 김도령이 날과 과연 배필이다 내 접이 영검하여 이처로 만났는가 하늘이 유의하여 내게로

보내신가 이처로 노닐다가 짓독에 바람 들어 인연을 못 일우고 개 소리에 놀라 깨니 침상일몽(寢上一夢)이라//

② 아까울사 이내 꿈을 어찌 다시 얻어보리 꿈을 상시 삼고 그 모양 상시 삼아 혼인이 되려무나 ㉠미친중이 대발(大發)하여 별떡 일어앉으면서 입은 치마 다시 찾고 신은 버선 또 찾으며 방춧돌을 옆에 끼고 짓는 개를 때릴 듯이 와당통탕 냅들 적에 엎더지락 곱더지락 바람벽에 이마 박고 문지방에 코를 개며 면경(面鏡) 석경(石鏡) 성적함(成赤函)을 날날이 다 깨치고 한숨지며 하는 말이 아깝고 아까울사 이내 꿈 아까울사....(중략)....남이 알까 부끄리나 안 슬픈 일 하여보자 흥두께에 자를 매어 갓 씌우고 옷 입히니 사람 모양 거의 같다 쓰다듬어 세워놓고 새 저고리 긴 치마를 호기있게 펼쳐입고 머리 위에 팔을 들어 제법(制法)으로 절을 하니 눈물이 종횡(縱橫)하여 입은 치마 다 적시고 한숨이 복발하여 곡성이 날 듯하다 마음을 강잉(強仍)하여 가만히 헤어보니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런 모양 이 거동을 신령(神靈)은 알 것이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생들도 의논하여 김도령과 의혼(議婚)하니 첫마디에 되는 구나//

①에서 보듯, 시적 화자는 그간 자신이 짝이 없었던 것은 그 누구 탓도 아닌 자신의 문제라는 각성을 보여준다(밑줄). 외부가 아닌 내부의 마음이 원인이었다고 하는 이러한 자각은 그간 노처녀의 마음을 짓눌러왔던 큰 고민들을 한 순간에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이는 그간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독백체로 풀어내면서(자아지향) 내부를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과정을 벗어나 스스로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적극성으로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 적극성은 혼인 성사 행위로 나타나는데 크게 꿈과 모의 결혼의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된다. 꿈은 가상적이어서 일시적으로 결핍된 욕망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욕망 실현 직전, 개 짓는

소리에 놀라 꿈을 깨어버린다는 설정 자체가 가상공간에서의 욕망 실현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상공간 속 욕망 실현의 요원함은 오히려 꿈을 꾸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와 시적 화자의 마음을 미친 듯이 흔들어 놓는다(㉠부분).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방식으로의 꿈 껌은 시적 화자를 더욱 부추겨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에서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하게 만든다.

그 계기의 실현이 바로 두 번째 모의 결혼의 형태이다. 시적 화자는 이제 가상공간을 벗어나 실제적 공간 속에서 이 결핍을 해결하려고 한다. 비록 이러한 노력이 실제 원하는 결혼 대상에게 편지를 보낸다거나 추파를 던진다거나 부모를 졸라 매파를 보내도록 하는 실질적인 결혼 성사를 위한 적극성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적 화자 나름의 모의결혼 형태를 통한 이러한 피나는 노력은 결국 이를 보게 된 타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면서 마침내 실제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밑줄). 따라서 노처녀가의 혼인 성사를 두고 개인적 노력을 통한 실질적인 결실이 아니라 이와는 무관한 지극히 우연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이 노래는 비록 노처녀가 스스로의 상황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풀어낸다는 점에서 '나-나'의 담론 형태를 띠지만(자아지향), 욕망 해소를 위한 '나'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기 인식은 '너'의 공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원심적 확산) 마침내 자아의 서사를 넘어 타자의 담론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주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꿈 속 결혼과 모의 결혼은 비교적 구체적인 데 반해 실제 결혼(㉡)은 매우 짧게 처리되어 있어 노처녀들의 결혼문제가 실제로는 문학에서처럼 쉽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줄 지라도 말이다.

이처럼 문학과 실제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건, 작품 속 '나'의 적극적인 태도가 그토록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욕망 결핍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청자 호명을 통해 내면으로 수렴되는 작품과

는 대척되는 지점에서, 자기 인식을 토대로 한 적극성을 담은 또 다른 작품이, 한탄의 서사를 넘어 화자-청자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토대로 한 극복의 서사로 나아간 지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면면들이 작품 속에 한데 어우러져 마침내 비극적 정서를 대신할 유쾌한 웃음과 행복한 감성이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Ⅲ. 담론의 차이, 그 원인으로서는 ‘시선’

<노처녀가> 두 편은 모두 늦도록 결혼 못한 처녀의 자탄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지만, 하나는 청자를 지향하되 자아의 내적 독백인 담론 형태를, 다른 하나는 자아를 지향하되 오히려 이것이 타자의 공감을 얻어 외적 확산을 이루는 담론 형태를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이면에는 타자와의 공감 문제와 더불어 시적 화자의 시선 문제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시선은 대상을 향한 화자의 감정 상태가 담긴 대상-화자 간의 매개체로, 여기에는 개인성과 집단성이 늘 공존해 있다. 즉 시적 화자는 외부와는 상관없이 순수하고도 주관적 의지로 어떤 대상을 볼 때도 있지만(시선의 개인성), 외부의 집단 시선에 이미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채로 대상을 바라볼 때도 있기 때문이다(시선의 집단성). 그렇기에 <노처녀가>의 담론 차이를 노정한 시선의 면면¹⁷⁾들이, 개인-집단 시선 간의 관계망 속에

17) 두 편의 노래에는 다양한 시선이 발견된다. 먼저 <노처녀가> I 에는 크게 ①내가 나를 향한 내적 시선, ②내가 타자(부모 및 자신을 둘러싼 상황)를 바라보는 시선이 발견되며, <노처녀가> II 에는 ①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적 시선, ②내가 타자(부모 및 자신을 둘러싼 상황)를 바라보는 시선, ③나를 바라보는 타자(서술자 및 가족들)의 시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 두 노래 간의 담론 차이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①의 시선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을

서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내·외적 시선의 중첩성과 자기 부정

두 편의 <노처녀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시선은 우선 '부정적인 시선'이다. 결혼을 못한 것이 내 의지의 박약 때문인지 나의 보잘 것 없는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자탄 사설에 나타났듯 가문과 명분 의식에 사로잡힌 부모의 욕심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 두 노래에서 발견되는 시적 화자의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선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일까?

주지하듯이 한 개인의 의사와 행동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에 의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식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면 노처녀 자신을 향한 시선은 개인의 시선이자 동시에 집단의 시선이 어우러진 '중첩된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18세기 문헌에서 발견되는 노처녀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① 婚嫁를 제때에 하게 함은 王政의 先務입니다. 지금 京外의 처녀로 나이가 2,30이 넘도록 시집 못간 자가 매우 많아 원망이 가슴에 맺혀 和氣를 손상할 것입니다. 『經國大典』과 『典錄通考』에 기재된 바로 보아도 나라에서 이 점에 마음을 쏟은 바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文王이 교화에 반드시 鰥寡孤獨부터 먼저 돌보았으니, 진달한 것이 옳다. 안으로 京兆의 部官이 찾아 물어서 戶曹와 宣惠廳에 보고하여 각별히 돌봐주게

체념하고 怨詞를 표출하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부정적 시선) 이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긍정적 시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에 주목하되, 이와 연결되어 있는 ②③도 필요 시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내, 외적 시선은 노처녀가 바라보는 시선을 '내적 시선'으로, 노처녀를 바라보는 국가적, 집단적, 공적 시선을 '외적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하고 밖으로는 감사와 수령이 역시 婚需를 갖춰 주어서 시기를 넘김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¹⁸⁾

② ...(前略)전하께서 天屬을 자애하시어 반드시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려고 하시면서 사방의 백성들이 시집가고 장가는 데에 시기를 놓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어찌 돌보고 구제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後略)...¹⁹⁾

③ 우의정 조현명이 말하기를, ‘적때 喪期를 넘기고도 장례를 지내지 못한 자와 婚期를 넘기고도 결혼하지 못한 남녀를 抄錄하는 일을 五部に 신칙하였는데, 그 보고한 바를 보았더니, 사대부 집안의 처녀와 남자로서 36, 7세에 이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 집안 내에서 4,5차례의 喪이 있었는데도 수렴하지 못한 경우가 또한 있었습니다. 서울이 이와 같으니, 지방은 알만합니다.²⁰⁾

위에서 보듯이 18세기 전반 영조 조에 이르면 노처녀, 노총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혼시키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①②). 뿐만 아니라 사대부 집안의 노총각, 노처녀로서 36,7세에 이르도록 혼례를 치르지 못한 것을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기도 했다(③). 사실 노처녀, 노총각의 결혼 문제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특히나 18세기 중반(1750년) 이후로 접어들면서 이 문제는 조선후기 문화 장(場) 안으로 들어오면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는 당시 양반의 수가 국토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수적 확대를 이룬

18) 영조 6년 12월 24일 <나이가 많도록 시집 못간 처녀 문제와 도장의 무리들의 폐단에 대한 박문수의 상소>,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3집,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1997.

19) 영조 11년 1월 22일, <탕평과 인재 등용, 양역의 폐단, 내탕의 혁파 등에 대한 부교리 김상성의 상소>, 위의 자료.

20) 영조 19년 2월 22일, <조현명이 임금에 혼례와 장례비를 보조해 줄 것을 청하다>, 위의 자료.

시기적 변모상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주지하듯이 임, 병 양란 이후 양반의 위상은 전례 없이 격하되었고 신분 매대행위 또한 급증하는 등 유교 질서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양반들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던 위신과 체면은 쉽사리 극복되지 않아서, 당시 사치스러운 혼례 풍속 안에서 혼수를 감당하기 버거워 고뇌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④ “서울이나 외방의 士庶는 큰 부자나 녹을 먹는 사람 이외에는 대체로 궁핍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양반이 가장 많고 또 가장 가난합니다.... (중략)....조선의 양반은 한번 공장이나 상인이 되면 당장에 상놈이 되니 공장이나 상인이 될 수 없고 살아갈 길은 단지 농사밖에 없는데, 만일 몸소 농사를 짓고 아내는 들에 밥 나르기를 농부가 하는 것처럼 하면 開丁이나 勸農의 직첩이 바로 나오니 이것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중략)...삼지어 처녀로 나이가 많아도 시집가지 못한 자는 대개 양반의 딸들이니, 세상에 궁하게 사는 것은 사실 이들과 비교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²¹⁾

⑤ “사대부와 서인으로 시집가고 장가드는 시기를 놓친 자에 대하여 中外로 하여금 돌보아 도와주도록 명하고, 하교하시기를, ‘가난한 선비가 시집가고 장가드는 시기를 놓친 것을 부끄럽게 여겨 가끔 숨기고 알리지 않는데, 부모의 물음에 자식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만물은 봄을 맞이하면 모두 열매를 맺는 이치가 있는데, 아! 백성 가운데 혼인하는 시기를 놓친 자들은 초목만도 못하니, 어떻게 왕도 정치를 한다고 하겠는가? 나의 부지런하고 간절한 뜻을 본받아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²²⁾

가난한 양반이 공장이나 상인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농사라도

21) 영조 26년 6월 22일, <지돈녕 이종성이 상서하여 戶錢, 結布의 폐단을 아뢰다>, 앞의 자료.

22) 영조 33년 1월 1일, <혼기를 놓친 사대부, 서인들을 돌보라고 하교하다>, 위의 자료.

짓게 되면 勸農의 직책이 바로 나오니 이는 죽어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데서, 명분에 사로잡힌 당대 양반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④). 이들 집안의 딸들은 나이가 많아도 시집가지 못하는 상황이니 노처녀가 그야말로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가난한 선비가 시집가고 장가드는 시기를 놓친 것을 부끄러워해서 스스로 숨기기도 한 모습도 심심찮게 발견된다(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를 양반의 수적 증가와 관련해 발생한 하나의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대대적인 구휼 작업을 벌이기도 했는데²³⁾ 이는 당시 노처녀의 혼인 문제라는 것이, 18세기 중엽 이후 사적 담론의 영역에서 벗어나 서서히 공적 담론의 영역으로 의미화 되기 시작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노처녀>에서 발견되는 자신을 향한 시선은 순수하게 내적, 개인적 시선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집단 시선이 덧입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노처녀를 비정상적 존재, 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주변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혼인장려책을 통해 이들을 가족 내로 편입시켜 국가 질서의 안정화를 꾀했던 상황²⁴⁾은 비단 조선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인터넷, 신문 기사 등지에서 비혼과 만혼 현상을 사회문제의 하나로 보고, 이들 대상자들을 결혼을 통해 정상적인 가족 내로 편입시켜야 할 존재로 간주하는 사례²⁵⁾는 심심찮게 발견된다. 심지어 비혼, 만혼 대상자들을 향한 공공의 시

23) 노처녀, 노총각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구휼 작업과 관련한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영조 조 기록에 자세하다(영조 38년 7월 10일 기사/41년 9월 23일 기사/46년 1월 17일 기사/48년 1월 4일/48년 1월 23일/48년 1월 29일 기사/49년 11월 26일 기사 등).

24) 조선조 노처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는 실록의 기록 등 역사적 사료와 더불어 다음의 글을 참고할 만하다(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유교적 가부장제와 주변적 여성의 흔적』, 『한국여성학』20집, 한국여성학회, 2004, pp.5-37; 『조선후기의 '변두리' 여성들: 과부, 재혼녀, 첩, 독신녀』, 『젠더, 경험, 역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4).

25) 인터넷 및 신문 기사에 실린 비혼, 만혼자들에 대한 인식과 관련 사례 등은 다음의

선 속에는, 이들을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이기적인 개인으로 바라보는 데 대한 암묵적인 합의마저 담겨 있기까지 하다.

‘결혼한 여성=정상’, ‘비혼, 만혼 여성=비정상’으로 보는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은 나아가 이들의 몸과 건강마저도 개인이 아닌, 권위를 가진 이들(의학, 과학 전문가의 지식 및 국가)이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²⁶⁾을 낳기도 했다. 집단에 의해 형성된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은 개인의 시선에도 영향을 주어, 마침내 주체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한 개인(노처녀)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낳기도 했다. 물론 근, 현대 시기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몸과 건강마저도 개인이 아닌, 권위를 가진 이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은 가족을 노동의 주체로 인식하던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이었던 데 반해,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측면보다는 원망이 가슴에 맺혀 화기(和氣)를 손상할 것이라는 유교적 질서 이념이 국가 통제의 이유로서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어느 경우든 ‘혼인’이 개인, 한 가정의 문제를 떠나 국가, 집단의 문제 속에서 시선화되고 다루어져야 할 명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처녀가>에서 발견되는 노처녀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또한 바로 이러한 개인 시선에 침윤된 집단 시선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노래를, 비록 18세기 노처녀 담론의 문학적 반향 속 태동한 작품으로 보아 오면서도 동시에 작품 속 텍스트적 상황 자체는 지극히 노처녀 개인의 상황을 읊은 것으로 환원시켜 이해해 온 것은 한번쯤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 참조할 것(박혜경, 『경제위기 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
과 성 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27집, 한국여성학회, 2011, pp.71-106).

26) 박광민, 『육체와 권력: 페미니즘, 푸코, 부르디외』, 『리서치 아카데미 논총』3집, 명지대학교 리서치아카데미, 2000, pp.33-47.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표면상 시적 화자의 단일한 목소리로 불리고, 제시된 텍스트적 상황 또한 그 누구의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노처녀 자신만의 것이긴 하지만, 시선 이론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속에는 시적화자 개인의 시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처녀를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 부정적인 집단의 시선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부의 시선에, ‘네’가 ‘나’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겹쳐서 단일한 목소리로 제시되는 이 노래, 두 편의 <노처녀가>에 나타난 자아의 시선은 개인의 산물이자 집단의 산물이며 집단의 시선에 침윤된 개인의 시선이기도 한 것이다.

2. 내적 시선에 담긴 저항성과 자기공정

한편, 어떤 현상이나 사람, 사물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부에 의해 형성된 집단 시선에 개인은 알게 모르게 동조되거나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타자의 시선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시선을 투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노처녀가> II에서, 한 노처녀의 서사가 자아 지향을 넘어서 타자 담론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행복한 결말 구조의 담론 특성을 함께 보여주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후자의 시선, 즉 타자의 부정적 시선을 거부하고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적 시선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자기 성찰적 시선은 단순히 시적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지하고도 세심하게 스스로가 처한 문제 상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데서 그 의미를 갖는다. 두 편의 <노처녀가>에는 사실 시적 화자가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는 ‘내적 시선’이 발견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처녀가> I에서는 그것이 집단의 부정적인 시선이 덧씌워진 형태로 나타났다면,

<노처녀가>Ⅱ에서는 이와는 달리 진정한 의미의 자기 성찰적 시선 형태가 제시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노처녀가>Ⅱ에서, '결혼에 대한 마음을 내지 못한 것'이 자신의 '마음'과 '의지'의 문제였지, '외모', '가문', '부모' 등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자각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러한 자각은 어떤 특정 집단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개인 스스로에 의한 것이어서 문제적이다. 이 시기가 민족적, 민중적, 개인적 자아 각성이 다각도로 진행되던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였음을 감안한다면, 작품 속 발견되는 자아각성은 당시 변해 가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문학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시대적 변화 및 흐름과 문학 작품 간의 상동성을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을 지라도 어느 문인, 어느 작품도 거시적인 시대 흐름과 그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노처녀가 자신을 향한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고 마침내 욕망 결핍을 해결할 가능성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곧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보려는 인식, 자아 성찰적 시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선 속에서 노처녀는 희화화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재현될 때도 있고, 신세를 한탄하여 극단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등 양가적인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중국에는 이러한 슬픔을 넘어서 스스로 짝을 찾아가는 문제해결자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거듭난다.

그런 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개인적인 깨달음의 시선이자 긍정의 시선이며, '나(자아)'를 향한 애정의 시선이자 연민의 시선이다. 또한 노처녀에 대한 집단적이고 부정적인 함의에 대한 거부적 시선이자 길들여진 시선에서 탈주하려는 저항의 시선이기도 하다. <노처녀가>Ⅱ에는 이처럼 타인이 만들어 놓은 '나'에 동조하는 '나'의 시선과 그와는 대척되는 지점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또 다른 나'의 성찰적 시선이 서로 길항 관계를

형성하며 역동적인 문학 장(場)을 형성한다. 이때, 자기 성찰적 시선, ‘나’를 향한 이러한 긍정의 시선이, 실제 당시 노처녀들의 자각이 문학 속에 발현된 것인지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지난한 꿈을 문학이라는 장치 속에서 가상으로 풀어낸 것인지는 뚜렷이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대와는 달리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변모 상을 보여준 이행기 시대에 여성들의 자아각성이라는 측면과 맞닿아 있는 지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문학 속에서만큼은 이들 노처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아래 글은 노처녀가 스스로의 현실극복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어 검토해 볼 만하다.

① 한 죄수가 딸 다섯 자매를 두었는데, 딸들을 시집보낼 줄 몰라 서른 살에서 스무 살까지 노처녀로 있었다. 그 때에 원님이 매사냥을 하다가 매를 잃어버렸는데, 매가 그 오 자매 집 울타리 안에 앉았다. 원님은 죄수집이라 가만히 후원에 들어가 살피는데 딸들이 재관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원님이 보니 제일 만딸이 재판관이 되고 둘째는 딸들을 시집보내지 않는 죄수 역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재판관인 큰 딸은 다섯 딸들을 시집보내지 않는 죄수 역을 맡은 둘째를 혼내면서 왜 딸들을 시집보내지 않았냐고 다그쳤다. 그리고 과년한 딸들을 모두 동네의 할아버지와 총각 누구누구에게 시집보내라고 판결하였다. 그 상황을 본 진짜 원님은 큰딸이 다섯 명의 딸들을 누구에게 시집보내라고 판결을 내리는지를 잘 듣고 그 내용을 적었다. 다음 날 원은 이방을 보내어 죄수를 잡아들였다. 죄수를 문책한 후 어제 딸들이 말한 대로 신랑감을 정해 당장 그리로 혼인하라고 하명했다. 원이 사주도 쓰고 택일도 해서 다 시집보냈다.²⁷⁾

27)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1(설화편)』, 문학과 치료, 2009, pp.648-649 참조 <노처녀들의 원님 놀이> 관련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2편이 채록되어 있는데 본 고에서는 정운채의 글을 참고하여 이야기 줄거리만 대략 간추려 놓았다.

② 달바는 정정 울고 잔디잔디 속님 난다

三年묵은 말가죽은 오용지용 우짓는의 老處女の 舉動보소 함박족박
드디지며 逆情너여 니른 말이 바다에도 섬이 있고 콩팍해도 눈이 있
지 봄썸즈리 스오나와 同牢宴을 보기를 밤마다 ㅎ여 뵈니
두어라 月老繩因緣인지 일락비락 ㅎ여라²⁸⁾

첫 번째는 노처녀가 원님놀이라는 모의재판을 통해 결혼을 함으로써 현실에서 못다 이룬 스스로의 문제를 문학적 장치 속에서 해결하려는 극복 가능성을 보여준 이야기²⁹⁾이며, 두 번째는 스스로 인연을 찾고자 하는 노처녀의 바람이 밤마다 꿈속에서라도 인연 맺음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형태로 표출된 사설시조이다. 비록 이 두 작품은 이야기와 노래라는 다른 갈래 형태를 보이지만, 모두 가상 놀이나 꿈이라는 문학 장치를 통해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한 좌절된 상황을 나름대로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노처녀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욕망 결핍을 해소하려는 극복 의지는 그 이면에 자신을 향한 연민과 따스함으로 무장된 자기 긍정성(자기애)이 있을 때 발현되기 마련이다. 즉 자기를 향한 애정과 긍정의 감정이 충만할 때는 어떻게든 욕망 결핍의 상

28) 이 사설시조는 『詩歌 朴氏本』에는 713번으로, 『東國歌辭』에는 #363번으로, 『(육당본)靑丘永言』에는 633번으로 실려 있는 작품이며, 이 외에도 『客樂譜』329번, 『奎章閣本)永言』345번, 『(고대본)樂府』674번, 『(校合)雅樂部歌集』3번, 『(校註)歌曲集』396번, 『(增補)歌曲源流』993번, 『歷代時調選』300번에서도 발견되는데 전체적인 내용 상 차이는 별반 없다. 인용은 심재완 편, 『(정본)시조대전』(일조각, 1984)과 김홍규 편, 『고시조대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2012)을 참고하여 기록한 것이다.

29) 이 작품을 두고 “원님놀이는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대체물이며, 비록 가공일망정 충분한 만족감을 얻으며 언젠가는 놀이 속과 같은 현명한 원님의 출현으로 긍정적인 결말을 기대”하면서 노처녀들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으로 파악한 견해는 따라서 주목된다(하은하, 『구비서사에 나타난 속이야기의 놀이적 특성과 그 효과』, 『한국고전연구』31집, 한국고전문화회, 2015, p.25).

황을 해소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이고, 이것이 자기 성찰적 시선과 결합되면 타자의 공감마저 이끌어내 마침내 결핍된 욕망을 실현할 가능성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처녀가 ‘꿈’을 통해 욕망 실현이 실패했다고 체념하고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타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미친 듯이 발악하는 일면 히스테리적인 행동이나 낱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한 효보다는 오히려 딸들의 혼사를 책임지지 않는 책임을 물어 부모를 재판에 불러다가 다그치는 모습 뒤에는 바로 욕망 결핍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자기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감정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실현될 때도 있고(<노처녀가>Ⅱ, ①), 그 실현가능성만 보여줄 때도 있지만(②) 끊임없이 결핍 상황을 벗어나려는 노력은 타자의 공감을 얻어내 결국 원하던 바를 얻거나 적어도 이에 가까워질 수는 있었던 것이다.³⁰⁾

이처럼 우리 문학 속 노처녀들은 비단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들을 바라보는 당대 타자의 시선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시기를 놓친’, ‘늙음(老)’이라는 부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왔던 것은 아닌가 한다. <노처녀가>의 오롯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노처녀의 자기 욕망 표출을 ‘비정상 범주 속 노처녀

30) ①<노처녀가>Ⅱ, ②<노처녀들의 원님 놀이>, ③사설시조는 노처녀를 중심으로 볼 때 ‘노처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향한 긍정성’을 함의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동시에 ‘시선’에 있어서 차이도 있다. ①과 ②의 노처녀는 보는 주체인 동시에 보이는 주체라면 ③의 노처녀는 철저히 보이는 주체로만 존재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주체가 권력을 행사하는 쪽이며 보이는 주체가 권력을 따르는 쪽인데 ①과 ②에서는 노처녀들이 ‘보이는 대상’이지만 오히려 원하던 것을 얻는 등 시선의 권력 구조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여준 데 비해, ③에서는 노처녀가 욕망 실현 의지를 보여주지만, 보는 주체가 ‘운명’에 맡기는 방향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시선의 권력 구조가 역전되는 데까지 나아가진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좀 더 고구해 봐야겠지만 가사, 설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사설시조 간의 장르적 차이로 말미암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들의 욕망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보여준 다양한 문학적 반항 및 표출 속에서 '여성'의 욕망 발산으로, 나아가 중세 시기 내내 억압되었던 한 '인간'의 욕망 발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노처녀가> 이해를 위한 새로운 모색-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노처녀가> 두 편의 담론 특성과 그 원인으로서는 시선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처녀가> I은 타인과의 공감 부재, 청자 호명, 욕망 결핍, 자아 지향의 독백체(나-너의 담론), 비극적 정서의 극대화 등이, <노처녀가> II는 자기 인식에 근거한 담론(나-나의 담론), 타자와의 공감 형성, 결핍된 욕망 해소, 행복한 결말 등이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노래 간 담론 구성 방식과美感의 차이는 청자와의 공감 형성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즉, 타자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경우는 자기 탄식의 노래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반면, 철저한 자기 인식과 극복 의지를 통해 타자와 공감을 형성한 경우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두 노래 간의 담론 차이는 그 이면에 시선의 문제가 크게 자리하고 있기도 했다. 우선 두 작품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이는 18세기 노처녀, 노총각을 구휼대상으로 삼았던 국가 정책 담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당시 노처녀에 대한 집단의 부정적이고 공적인 시선과 이러한 시선에 편승한 개인의 시선이 중첩되어 생겨나게 된 이 시선은, <노처녀가> II에 오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성과 자각으로 인해 극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결혼을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외부가 아닌 내부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집단적이고 부정적인 타자의 시선에 항거하는 거부의 시선을 드러냈던 것이다. 단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노처

녀가>에 나타난 부정적, 타자의 시선은 노처녀를 비정상의 범주로 바라보는 국가적인 시선이자 중세적 시선의 일면이 강하다면, <노처녀가>Ⅱ에서 보이는 긍정적, 자아 각성의 시선은 이러한 유교 이념이 강한 중세적 시선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시선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근대적인 시선의 일면으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근, 현대에도 노처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므로 과연 중세 시선-근대 시선으로 양립 가능한지를 보다 따져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처녀, 노총각에 대한 인식은 긍정, 부정, 자기 인식, 타자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해 왔을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분명 자신도 모르게 국가가 만들어 낸 타자의 시선에 침윤되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노처녀가>Ⅰ)이나,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 기존의 지배질서가 강하게 반영된 중세의 시선을 차츰 극복해 가며 새로운 시선의 일면을 보여준 현상(<노처녀가>Ⅱ) 등은 이들 시선을 어떻게 명명하든지 간에 분명 이 시기 문학사적 흐름에서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이다.

이처럼 본 논의는 이 시기 문제적 여성인 노처녀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시각화하고 이를 문학 담론화 하는가를 밝힘으로써 작품 해석의 지평을 넓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논의가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니려면 이러한 단편적인 논의를 넘어서 노총각이 문학적으로 형상화 된 작품들과 노처녀를 소재로 한 여타 갈래들까지 아울러 담론간의 同異, 美感의 차이 등을 밝히는 쪽으로 논의의 편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시점에서 이와 관련해 거칠게 한두 가지만 언급해 본다면, 우선 노총각이 문학적으로 형상화 된 경우는 구비설화에서 그 흔적이 엿보인다. 가난한 노총각 머슴이富力 결핍 해소를 위해 부자인 과부를 속여서 결혼하거나 성적으로 과부를 유혹하는 이야기³¹⁾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결혼 문제 외에 궁핍이라는 생활고가 겹쳐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양반집 규수

인 노처녀와 머슴인 노총각 사이에는 욕망 결핍을 극복하는 데 있어 미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노처녀가 신세 한탄만 하거나 자기 인식을 통한 극복 의지를 스스로 보여주려 한 데 비해, 노총각은 속임수를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의 성적 욕망과 가난 극복 두 가지 모두를 쟁취하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신분 차이 때문인지 성별 차이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모두 주체가 욕망 결핍 의지를 나름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께 주목해 볼 만하다.³²⁾

또 노처녀를 소재로 한 여타 문학 갈래들 간의 비교 논의는 동, 서양 문학으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얼핏 떠오르는 노처녀들로는 근대적 의식을 지닌 엘리트이지만 신체적으로 죽어버린 존재 이상이 아닌 노처녀 나쓰코³³⁾, 기존의 젠더규범과 배치되는 독립적인 여성이자 동시에 보수적인 여성상으로 재현되는 노처녀 탐정 버터워스와 미스 마플³⁴⁾ 등이 있는데 이

31)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 한국학중앙연구원, 1989, p.283, <속고속이기> 유형 참조.

32) 노총각 머슴-과부 결연 이야기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할 것(김난경, 『설화 <지체 높은 여성과 결연한 노총각 머슴> 유형의 양상과 의미-과부와 처녀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27집, 돈암어문학회, 2014, pp.7-36; 김지현, 『욕망의 결핍과 충족을 통해 본 과부담의 양상』, 『남도민속연구』8집, 남도민속학회, 2002, pp.5-24; 김기형, 『구비설화에 나타난 과부의 형상과 의미』, 『한국민속학』26집, 한국민속학회, 1994, pp.27-53 등).

33) 나쓰코는 일본의 근대작가 Shimazaki Toson의 소설 <노처녀>(1903) 속에 등장하는 엘리트 여성주인공이다. 작품 속에는 독신의 길을 가는 나쓰코와 결혼을 앞둔 세키코가 등장해 누가 더 행복한 삶인지 내기하는데 '독신인 나쓰코는 신체적으로 죽었고, 결혼한 세키코는 정신적으로 죽었다.'(獨身の生涯は夏子を身體の方で殺して了つた...(中略)...結婚の生涯は精神の上では殺して了つた)는 표현에서 보듯 진정한 행복한 여성은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보여준다.

34) 버터워스(Amelia Butterworth)와 미스 마플(Miss Marple)은 각각 그린과 크리스티의 대표적인 추리소설(『That Affair Next Door』, 『The Murder at the Vicarage』) 속의 노처녀탐정들이다. 이들은 보통 결혼을 욕망하지 않으며 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

들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국가와 남성이 규정한 비정상적 범주 속 여성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의지로 결혼을 기피한 채 스스로의 지적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무장된 여성(나쓰코, 버터워스, 미스마플), 결혼을 욕망하지만 부모 세대와의 가치관의 갈등으로 좌절된 욕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성(<노처녀가> I), 자기 인식과 깨달음을 통해 결핍된 욕망(결혼)을 실현시키고 마는 적극적인 여성(<노처녀가> II, 구비설화 속 모의재판을 하는 노처녀들)이라는 크고 작은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이들이 살던 시대의 문제, 문화적 차이, 이들을 향한 개인 및 집단 시선의 문제 등 다양한 층위가 맞물려 있어 보다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동, 서양 문학 속에는 많은 노처녀가 등장한다. 앞선 문제와 더불어 이들 문학 속에 등장하는 노처녀들 간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어떻게 씨실과 날실처럼 엮여 있는지 그 흔적을 찾아가 보는 작업은 꽤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시기별 주변적 여성으로서 노처녀가 차지하는 위상 및 미학적 함의 등을 밝혀냄으로써 여전히 뚜렷한 실체로 다가오지 않고 있는 여성문학사적 밑그림을 보다 선명히 하는 토대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노처녀와 관련된, 여전히 남겨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시간상, 지면상 또 필자의 역량상 거론하지 못하였다.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수사에 개입하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자부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재현된다. 그러나 동시에 남성의 성 이데올로기 속에 자신을 가두는 모습도 보이는데, 노처녀탐정이 갖는 보수성 관련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계정민, 『“거슬리는 늙은 고양이들”-노처녀탐정 추리소설의 성 정치학』, 『영어영문학』59집, 한국영어영문학회, 2013, pp.511-526).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홍규 외 편, 『고시조 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심재완 편, 『(정본)시조대전』, 일조각, 1984.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3집,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
구소, 1997.

2. 논문 및 단행본

- 강경호, 「19세기 가사의 향유 관습과 이본 생성-〈노처녀가(2)〉와 그 관련 작품을
통해 본 가사 향유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18집, 반교어문학회, 2005,
계정민, 「“거슬리는 늙은 고양이들” -노처녀탐정 추리소설의 성 정치학」, 『영어영문
학』59집, 한국영어영문학회, 2013, pp.511-526.
고순희, 「노처녀가1연구」, 『한국시가연구』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p.186.
김기형, 「구비설화에 나타난 과부의 형상과 의미」, 『한국민속학』26집, 한국민속학회,
1994, pp.27-53.
김난경, 「설화 <지체 높은 여성과 결연한 노총각 머슴> 유형의 양상과 의미-과부와
처녀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27집, 돈암어문학회, 2014, pp.7-36.
김석희, 「〈노처녀가〉 이해의 시각」, 『선칭어문』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pp.285-309.
김용찬, 「『삼설기』소재 <노처녀가>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한 검토」, 『한국가사문학연
구』(정재호 편), 태학사, 1996, pp.419-420.
김지현, 「육망의 결핍과 충족을 통해 본 과부담의 양상」, 『남도민속연구』8집, 남도민
속학회, 2002, pp.5-24.
김현주, 「‘옛보는 시선’과 재현 윤리의 문제-〈단오풍정〉과 판소리 사설의 상관성을
통한 해석」, 『시학과 언어학』22호, 시학과 언어학회, 2012, pp.153-173.
박광민, 「육체와 권력: 페미니즘, 푸코, 부르디외」, 『리서치 아카데미 논총』3집, 명지
대학교 리서치아카데미, 2000, pp.33-47.
박상영, 『사설시조의 웃음 미학과 담론』, 아세아문화사, 2013.
박일용, 「노처녀 1의 담론 형태와 그 시학적 의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 박일용, 「삼설기에 나타난 율문적 문체와 그 의미」, 『장르교섭과 고전시가』, 월인, 1999.
-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기파랑, 2008.
- 박혜경, 「경제위기 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과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27집, 한국여성학회, 2011, pp.71-106.
- 성무경, 「노처녀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서, 2004.
- 양정화, 「조선후기 가사에 나타난 ‘애정담론’의 실현 양상-〈삼설기본 노처녀가〉와 〈잡가본 노처녀가〉의 향유문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54집, 국제어문학회, 2012, pp.245-275.
-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1(설화편)』, 문학과 치료, 2009.
-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유교적 가부장제와 주변적 여성의 흔적」, 『한국여성학』20집, 한국여성학회, 2004, pp.5-37.
- _____, 「조선후기의 ‘변두리’ 여성들: 과부, 재혼녀, 첩, 독신녀」, 『젠더, 경험, 역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4.
- 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교섭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잡가본 노처녀가〉와의 대비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5집, 한국시가학회, 1999, pp.401-426.
-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과정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비평』46호, 창작과비평사, 1977.
- 최진형, 「가사의 소설화’ 재론」, 『성균어문연구』32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pp.213-244.
- 하운섭, 「시적 체험의 다양성과 <노처녀가(1)>-규방가사 권역에서 향유된 <노처녀가(1)>을 중심으로」, 『국어문학』44집, 국어문학회, 2008, pp.285-303.
- 하은하, 「구비서사에 나타난 속이야기의 놀이적 특성과 그 효과」, 『한국고전연구』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15, pp.5-39.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 1989.
- 존 버거 · 伊藤俊治, 『이미지ways of seeing』, 동문선, 1990.
- 조나단 크래리, 「시각의 근대화」, 『시각과 시성』(헬 포스터 편, 최연희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4.

_____, 『관찰자의 기술』(임동근 외 역), 문학과 문학사, 2001.

토마스 플린, 『푸코와 시각의 붕괴』, 『모더니티와 시각의 헤게모니』(데이비드 마이클 레빈 편, 정성철·백문임 역), 시각과 언어, 2004.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Structure in <Nocheonyeoga> and Gaze issue as its reason

Park, Sang-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structure in <Nocheonyeoga>, one of Korean Classical Poetry works, Gasa genre and Gaze issue as its reason. There are two types of <Nocheonyeoga>, so-called <Nocheonyeoga> I and II. Both are written and sung by old unmarried women but I has a sad ending while II has a happy ending. These two songs have been researched in many ways but this topic has never been researched in spite of its importance as a clue to reveal an aesthetical implication between two works.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Nocheonyeoga> I, it is discovered that there ar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oetic speaker suffering from inability communication with others, deficiency of desire from an unmarried situation, efforts to overcome un-communication situation by calling others and even its failure, monopoly towards poetic speaker, herself, tragedy, etc. On the other hand, in <Nocheonyeoga> II, it is discovered that there are characteristics such as ambivalent self-recognition which mixed with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towards herself instead of calling others to communicate with, the poetic speaker who are happy with solving deficiency of desire from unmarried situation by real marriage, empathy with others, monopoly towards poetic speaker and its expansion to others, happiness, etc.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songs are related to poetic speaker's obtaining empathy from others on the surface. In other words, if the poetic speaker gains empathy with others, it could remain as a happy song but If not, it could remain as a sad song. With this empathy issue, the poetic speaker's gaze is also very important to inform structural differences of

discourse between the two songs. First, a negative gaze is discovered from both songs. This gaze is the one that poetic speaker's personal gaze and national and collective gaze are overlapped. In 18th's century, old maid and old bachelors were issues in Korean society as a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from national point of view. Their marriage started to be meaningful as public issue over private issue. Negative gaze which is discovered from <Nocheonyeoga> is related to this social atmosphere at that time. On the other hand, positive gaze is also discovered, especially from <Nocheonyeoga> II. This gaze is naturally from poetic speaker's inner mind with her own self-recognition. It is poetic speaker's gaze of protest and denial against others' negative gaze others towards old maids.

It also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negative gaze is related to values during medieval time period and positive gaze is related to values of modern time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structure and gazes as its reason being discovered from <Nocheonyeoga> is meaningful in that these two songs show aspects of conflict and its overcoming processes between medieval values and modern ones.

Key Word : <Nocheonyeoga>, discourse structure, gaze, old maids, empathy, self-recognition

박상영

소속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 life111@cu.ac.kr

<p>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p>
